

# 여성 당뇨병환자의 성기능장애

혹자는 '여성에게도 성기능장애가 있나?' 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성이 성기능장애 때문에 성행위를 못했다는 얘기를 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혹 어떤 이유로 아파서 못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어쩌면 상대가 아파해도 무리하게 성관계를 해본 남성이라면 더 더욱이 고개를 가우뚱 거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쉽게 얘기해서 남성도 조루가 있는 사람이 성관계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여성은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성행위가 가능한 하지만 매 성행위마다 별로 성적 충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민 권 식 교수 | 부산백병원 비뇨기과

## 자신의 성기능 문제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

여성 성기능장애는 크게 성관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욕구장애(전체 여성 성기능장애의 23.4%를 차지), 성적 욕구가 생겨서 관계는 하지만 성적 흥분이 잘 안 되거나 질분비물이 적은 성각성(성적 흥분) 장애(40%), 성적으로 충분히 흥분이 되었는데도 마지막 극치감(오르가즘)에 도달이 잘 안 되는 극치감장애(23.1%), 성관계 중에 통증으로 인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성동통장애(13.4%)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런 4가지 중 한가지 성기능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남성과 달리 성행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성적 만족감이 없는 성행위가 반복되면 여성은 성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귀찮게만 느껴지는 성행위를 회피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남편과 같

등을 겪게 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과 정서적 친밀감 상실로 남남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물론 더러는 여성이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무시하는 남성이 있지만, 여성이 자신의 성기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남성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도 모른 채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성의 발기부전은 성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기능장애보다 중요한 질환인데, 이 발기부전의 원인 중 단일 질환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미세혈관을 파괴하고 신경이 망가져서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기에 관계하는 음경의 혈관을 파



브라질의 한 주간지, 발기부전에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성 성기능장애의 치료에도 쓰인다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과하여 혈류 공급이 적어지고 음경 신경이 망가져 성감을 느낄 수 없게 되면 발기부전이 발생한다.

###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장애 발생

여성도 성적 흥분은 남성의 발기(음경에 혈액이 가득 차서 강직도를 가지게 되는 현상)와 같아서 여성의 질과 외성기에 혈액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제대로 충만되지 못하면 질분비물이 적게 나오고 음핵의 발기(여성도 흥분하면 음핵이 부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도 적어져 성적 흥분이 저하된다. 결국 여성의 성적 흥분도 남성과 같이 혈관의 건강상태가 중요하며 따라서 혈관 관련 질환이 생기면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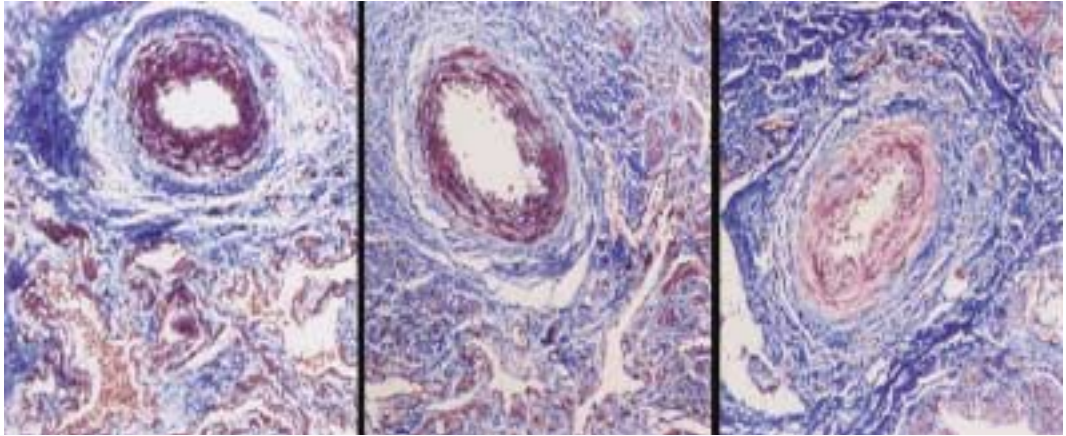
흥분이 잘 되지 않는 성각성장애가 발생한다. 결국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당뇨병은 병의 경중에 따라 흔히 여성 성기능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의료인이나 환자들이 아직 여성성기능장애에 대한 지식이 적어 합병증으로서 이런 병이 발생한다는 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남성과 달리 여성은 당뇨가 발생하고 몇 년 지나 성기능장애가 올 즈음이면 폐경기 전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환자들은 그저 폐경기로 인해 그렇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폐경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도 일조를 하겠지만 당뇨로 인한 혈관의 변화는 폐경기로 인한 여성호르몬의 부족을 보충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들어 성욕도 없고 질분비물도 적어지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옛날 그대로 하는데

도 흥분이 잘 되지 않고 힘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아무리 나이이지만 그래도 이 나이려면 너무 아까운데...”

51세인 환자의 말이다. 과거에는 이 나이려면 노인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음핵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조직학적으로 보여주는 사진(11세, 45세, 83세의 음핵사진)

취급이지만 지금이라면 뭔가 하지 않으면 좀이 쑤실 청춘(?)이다. 당연히 성적인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이다. 환자는 폐경기의 나이로 생각되어 성호르몬 검사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간, 신장, 당뇨검사 등을 하였더니 성호르몬도 감소되어 있었지만 뜻밖에 당뇨가 있었다. 환자 본인은 경도의 당뇨에 대해 보건소 의사가 괜찮다고 하여 10년 넘게 그냥 방치하였다는 것. 질혈류 검사(외성기에 성적흥분으로 얼마나 혈류가 증가하는지 파악하는 검사)와 외성기 감각 검사를 시행하였더니 모두 중등도의 비정상상으로 나타났다. 만성적 당뇨가 진행되어 성적으로 흥분이 되어도 질이나 음핵, 소음순, 등으로 가는 혈류가 제대로 증가하지 않아 질분비물도 적었고, 당뇨로 인해 외성기의 감각신경 이상으로 남편의 애무에도 크게 자극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원인 별 진단은 되었지만 신경과 혈관이 이미 많이 손상당하면 사실 치료가 썩 쉬운 것이 아니다. 이때는 외성기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성적 자극을 강하게 오래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또 감소된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혈

관확장제를 투여하고 여성호르몬도 보충을 하였다. 과거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환자는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계속 약물치료 중이다. 무엇보다도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바탕이 된 상태라야 이와 같은 치료가 빛을 발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주지시켜 철저한 당뇨조절이 되도록 하였다.

### 남성 호르몬의 저하로 성욕 감퇴

“내가 이런 상태에서 더 무엇을 바라거나,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애 아빠를 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저도 이 나이에 포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아무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소아 당뇨부터 시작해서 이젠 신부전까지 초래된, 31세 된 젊은 환자의 절박한 인간적인 고뇌였다. 성한 데는 없어도 인간의 올바른 권리는 누리고 싶다는 것이 오히려 과한 욕심일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구도 힘부로 버릴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이 아닐까? 그녀의 문제는

성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혼 전부터도 성욕이 친구에 비해 좀 적다고 느껴졌었지만 그저 '개인차이'라고만 느껴왔다. 그러나 젊은 여성으로서 호기심 이는 성에 대한 적잖은 이야기를 들은 마당에 혼자 성적 극치감은 고사하고라도 성적 흥분과 함께 남편과 동질감을 느끼고 싶다는 당연한 욕심에 진로실을 들렸다. 흥분은 잘 안되지만 질분비물은 충분한 상태였다. 여러 특수검사서 뜻밖에 외성기 혈류는 비교적 정상 수준이었고 외성기 감각이 약간 감소되어 있었으나 환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할 때 잘 보존된 상태였다. 여성호르몬은 충분하였지만 남성호르몬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남성호르몬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이지만 여성에게서도 남성의 약 1/10 정도로 혈 중에 있으면서 여성의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뇨병환자에서 더러 남성호르몬이 저하되면서 성욕 감퇴가 더러 나타나는데 특히 신부전까지 겹치는 경우에는 빈도가 높아진다. 이 환자는 발기 관련 혈관과 신경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남성호르몬만 선택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우선 남성호르몬을 3개월 정도 보충한 후 증상을 살펴보았다. 투약 전보다는 성욕이 증가하고 성생활이 반겨지는 느낌이었지만 아직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남편에게 성적 자극의 요령을 가르쳐주고 환자 자신에게도 자위행위를 통하여 성행위 요령을 터득하면서 성감을 익혀나가도록 하여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부부관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성호르몬의 보충에는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나치게 다량이 투여되면 환자에게서 체모가 많아지거나 여드름, 지성피부, 심하면 수염이 나거나 목이 쉬기도 하는 부작용

이 있으므로 용량 조절과 기간을 주의하며 투여한다. 특히 환자와 같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태아에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암(자궁경부암은 제외)이 있었던 환자는 남성호르몬 투여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 당뇨로 인해 혈류가 줄어 나타나는 성교통

“전 잠자리만 들면 긴장이 되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아니면 아예 남편이 잠들 때까지 일부러 설거지를 남겨 뒀다가 밤에 하죠. 물도 크게 틀어 아예 말도 안 들리는 척해요. 하자는 남편을 뿌리치기는 그렇고 아예 그 말이 나올 틈을 만들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거든요... 이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성교통 때문에 남편과 잠자리를 피하려는 42세 당뇨병환자의 이야기다. 7~8년을 별 다른 노력 없이 이렇게 지내왔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환자였다. 검사상 성호르몬은 이상이 없어, 여성호르몬의 부족으로 오는 질 분비물감소는 아니었다. 당뇨도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었





고 외음부 감각검사도 비교적 정상이었다. 질 혈류검사상 심한 혈류의 장애가 관찰되어 성적 흥분을 시키더라도 거의 혈류가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당뇨로 인해 성적 흥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혈류가 적어 질분비물이 거의 생산되지 못하여 통증이 오는 정말 단순한 상황이었다. 이미 질혈류의 개선은 힘들 정도로 심한 상태이어서 혈관확장제를 정기적으로 투여를 하였지만 질분비물 증가에 뚜렷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질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면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되었지만 이미 오랜 시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도는 매우 떨어져 있었고 아내도 굳이 자신의 성적 만족은 찾을 의사가 없어 그냥 통증이 없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치료와 노력을 거부하였다. 윤활제 하나만으로도

환자가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단순한 문제를, 단지 오래 방치했다는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심하다는 느낌이었지만 환자의 노력이 없는 성기능장애의 치료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안타깝지만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 환자의 인식과 노력이 치료에 가장 중요

이와 같이 당뇨로 인한 여성 성기능장애는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인식과 노력이 없이는 아무 것도 치료될 수 없다. 환자만 원한다면 충분히 성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이미 앞서 치료제와 방법을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음핵을 자극하는 물리치료기, 혈류를 증가시키는 주사제, 성감을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함께 시도되기도 한다. 사실 남성은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 음경의 혈류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대부분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여성 특유의 친밀감도 고려해서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운 성이 되도록 하여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만큼 치료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의사와 환자의 충분한 노력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의사나 환자 모두 잘 이해하여야 치료 성공률이 높다.

### 철저한 당뇨관리와 적극적인 노력 필요

모든 병들이 그렇듯이 질병이 심화되기 전에 치료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은 많은 원인이 있고 다인자 질환이어서 예방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로 인한 여성 성기능장애 같은 경우는 우선 당뇨라는 큰 맥락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방으로는 당뇨를 철저히 관리해서 합병증이 가능한 경하게, 늦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그래도 조금씩 성적 흥분이나 성욕, 극치감 등이 약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남편의 애무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예방에 아주 좋다. 외래에서 여성들로부터 남편들의 전희에 관련된 불만들을 자주 듣게 된다. '우리 남편은 성급하고 섬세하지 못한, 가슴 마사지에만 의존하는 답답이', '손과 마음으로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채 페니스로만 나를 기억하려 하는 남편', '결국 나를 흥분으로 끌지 못할 그의 손길이라면 차라리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충분하지도 않은 전희를 내게 베푸는 듯이 하는 남편이 정말 가소로워요.' 남편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줄은 알지만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가 원하는 애무가 아니라 자기 혼자 도취하는 애무죠.' 그나마 안 해주는 남편들에 비해서는 다행이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낙제 점수다. 이런 남편을 각성시켜 내가 원하는 애무 형태로 만들어야 성기능장애가 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어렵다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된다. 성감을 잊지 않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뇨로 인한 여성 성기능장애는 가장 흔한 형태가 성적으로 흥분이 잘 되지 않는 성각성장 애인데 비교적 개선이 쉽다. 그러나 불감증처

럼 처음 성행위부터 흥미를 못 느끼거나 성적 흥분 이상, 극치감 도달 불능이 있어왔다면 치료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당뇨로 인한 환자는 과거에 충분한 성적 만족의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개는 많지 않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다만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신체 상태에서 의료인을 찾아오는 것까지는 환자의 몫이다. 남성은 음경의 문제가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음경보형물 삽입술이라는 극적인 처방법이 있지만 아직 여성에게는 마지막 순간에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안하고 살면 되지..."라고 주장한다.

성행위는 흔히 말하듯 싱글들이 저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혼자서 하는 놀이와 같은 장난이 아니다. 부부로서의 신뢰와 정사적 교감을 위한 신체 언어이기 때문에 평생을 남편과 말하지 않고 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남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성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찾아야 짙은 행복은 못 가지더라도 어설픈 불행을 당하지 않을 일이다. 